

2017년 8월 10일

# 투자전략 Daily

• 원자재전략

금 가격, 관건은 미 연준

• 중화권 증시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에 홍콩 약세, 본토 영향 미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이엘피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철강, 대림산업, 인터파크, 한국타이어, 컴투스, 파라다이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 3276-6232  
해 외 주 식 | 백찬규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 로 벌 기 업 | 정희석 ☎ 3276-6277  
자 산 배 분 전 략 | 정현중 ☎ 3276-6191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3(목)	8/4(금)	8/7(월)	8/8(화)	8/9(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86.85	2,395.45	2,398.75	2,394.73	2,368.39	
	등락폭	-40.78	8.6	3.3	-4.02	-26.34	
	등락종목	상승(상한)	142(2)	469(2)	458(0)	345(0)	202(0)
		하락(하한)	698(0)	335(0)	339(0)	447(0)	611(0)
	ADR	84.74	88.11	93.36	92.00	90.48	
	이격도	10 일	98.38	98.96	99.31	99.33	98.51
		20 일	98.72	99.04	99.14	98.98	97.94
	투자심리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04	274	244	253	232
	거래대금	(십억 원)	6,501	5,084	4,428	4,624	4,638
코스닥	코스닥지수	643.09	641.58	648.39	651.67	642.87	
	등락폭	-14.43	-1.51	6.81	3.28	-8.8	
	등락종목	상승(상한)	157(1)	534(1)	748(1)	602(3)	208(2)
		하락(하한)	998(0)	555(0)	344(0)	495(0)	926(0)
	ADR	100.61	100.33	101.35	101.81	100.39	
	이격도	10 일	97.21	97.50	98.97	99.76	98.78
		20 일	97.27	97.21	98.31	98.84	97.56
	투자심리	4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528	459	456	608	842
	거래대금	(십억 원)	3,198	2,671	2,449	2,588	2,995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62.1	1,375.8	1,230.3	314.9	66.5	183.2	58.5	13.1	594.1	74.2
	매도	2,048.1	1,636.1	921.8	250.2	70.7	176.2	96.7	25.6	302.5	36.4
	순매수	-86.0	-260.3	308.5	64.8	-4.2	7.0	-38.2	-12.5	291.6	37.8
	8월 누계	12.1	-542.2	298.7	325.7	11.1	106.0	-54.3	-35.2	-54.6	231.4
	17년 누계	-4,953.2	8,156.5	-6,179.4	3,753.7	-1,548.3	-3,659.0	-263.9	-597.3	-3,864.8	2,976.1
코스닥	매수	2,659.5	192.5	135.2	28.7	11.6	32.1	24.1	1.9	36.7	14.1
	매도	2,637.9	238.4	102.8	31.3	5.0	19.2	13.9	2.5	31.0	22.2
	순매수	21.6	-45.8	32.3	-2.6	6.6	12.9	10.3	-0.6	5.8	-8.1
	8월 누계	196.9	-154.8	-15.6	3.6	1.8	-1.3	26.2	-0.9	-45.2	-26.6
	17년 누계	2,819.5	1,066.4	-2,781.1	-668.0	-364.3	-617.8	-320.4	-69.7	-741.0	-1,104.9

## 금 가격, 관건은 미 연준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51배
12MF PBR	0.97배
Yield Gap	8.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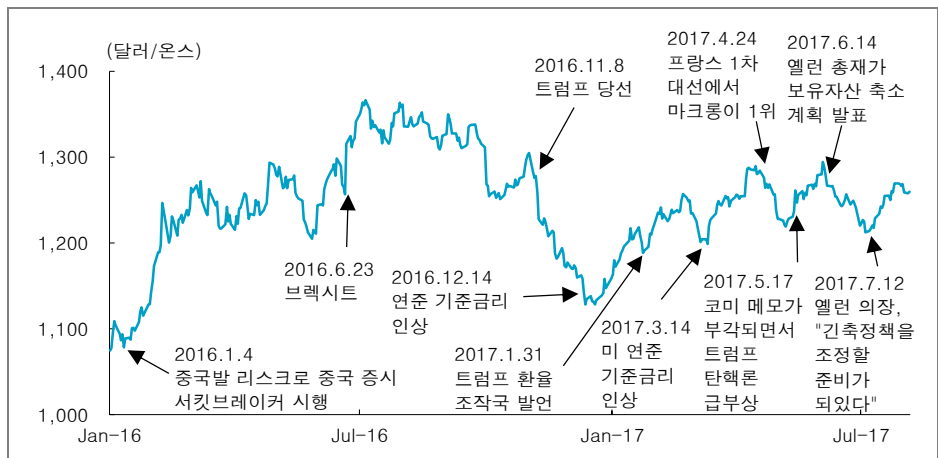
- ▶ 금 가격은 연초 이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 ▶ 최근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ETF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금 가격 상승은 제한
- ▶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이상 금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 연초 이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금 가격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금 가격

연초 이후 금 가격은 온스당 1,200~1,300달러의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프랑스 대선, 트럼프 탄핵론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진 가운데 달러가 꾸준히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 가격의 상승세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금 가격은 3월 FOMC를 앞두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에 반락했다. 예상대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EU 탈퇴를 주장하는 르펜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금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1차 대선에서 마크롱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결선 투표 역시 마크롱이 승리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로 인해 금 가격은 재차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트럼프 탄핵론이 급부상하면서 금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금 가격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6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보유 자산 축소 계획을 밝히는 등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엘런 의장이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 긴축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7월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시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상승세가 제한되었던 이유

연초부터 이어진 달러 약세에도 금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

보통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금 또한 다른 원자재들과 마찬가지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금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상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은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연초 이후 달러 약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박스권에서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 2]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투기적 포지션 역시 크게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

이처럼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박스권에서 움직인 이유는 바로 금 가격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가운데 투기적 포지션 역시 크게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 ETF들로의 자금 유입 여부는 금 가격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 ETF와는 달리 해외 ETF들은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이에 비례하여 금을 실물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ETF들의 금 보유량 합은 2,312톤에 달하며 이는 중국의 금 보유량(1,843톤)보다 25%나 많은 수준이다.

<표 1> 주요 해외 ETF들의 금 보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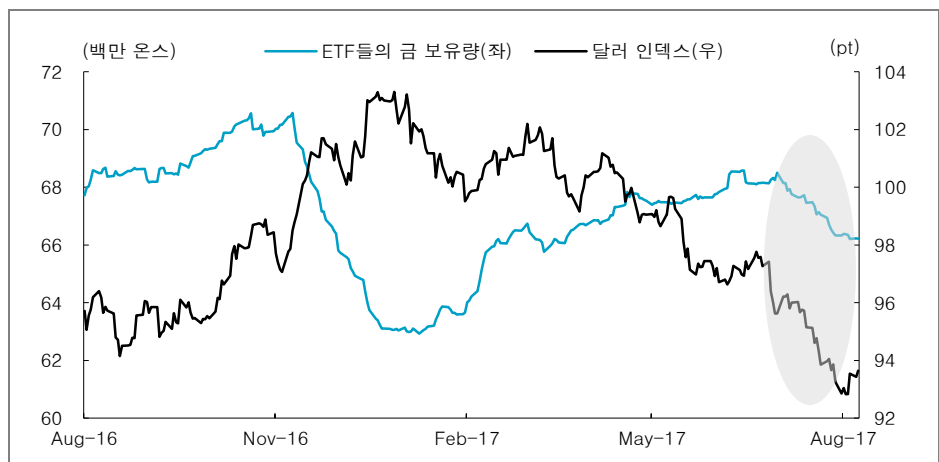
순위	ETF명	국가명	금 보유량(톤)
1	SPDR Gold Shares	미국	852.5
2	iShares Gold Trust	미국	210.3
3	Xetra-Gold	독일	167.6
4	ZKB Gold ETF	스위스	148.6
5	ETFS Physical Gold	영국	144.5
6	Source Physical Gold P-ETC	영국	111.7
7	Gold Bullion Securities Ltd	영국	101.9
8	iShares Physical Gold ETC	영국	68.2
9	Sprott Physical Gold Trust	미국	54.6
10	Central Fund of Canada Ltd	캐나다	52.0
총			2,312.7

주: 2017년 6월 말 기준  
 자료: WGC, 한국투자증권

최근 금 ETF들의  
 금 보유량은 오히려 감소세

그러나 최근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ETF들의 금 보유량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경우 금 보유량이 늘어났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금 ETF로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결국 ETF들의 금 보유량은 7월 초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 3] 달러 인덱스와 ETF들의 금 보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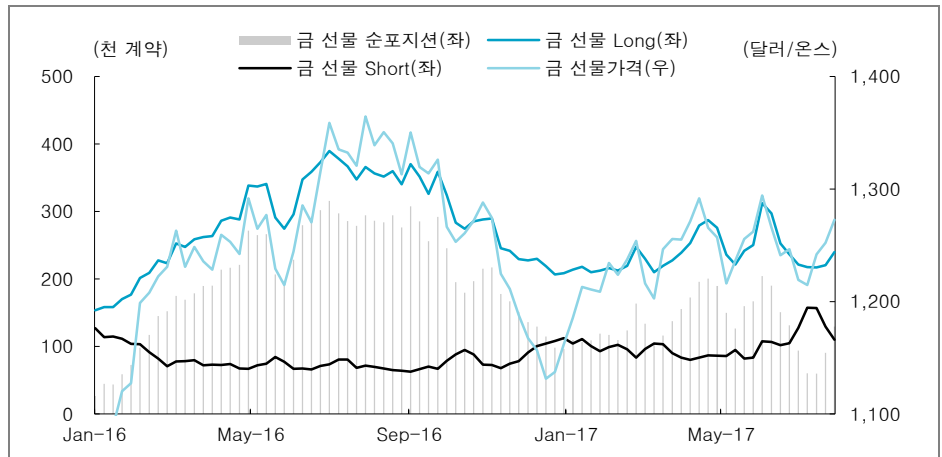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금 투기적 매수 포지션 역시  
 1.8만 계약 늘어나는데 그침

금 투기적 매수 포지션 역시 금 가격의 상승을 주도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달러 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투기적 매수 포지션은 7월 한 달 동안 1.8만 계약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림 4] 금 투기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이상 금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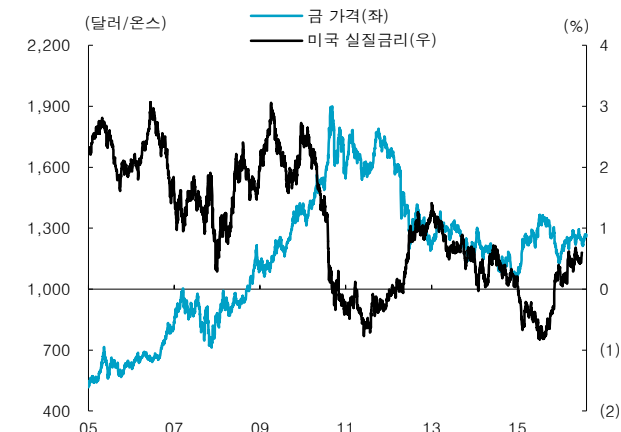
금의 단점 중 하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처럼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 국채금리가 박스권을 보였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으로써 금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으로부터는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주식으로부터는 배당수익이 발생하지만 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세차익 말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리 인상시 금에 대한 투자수요는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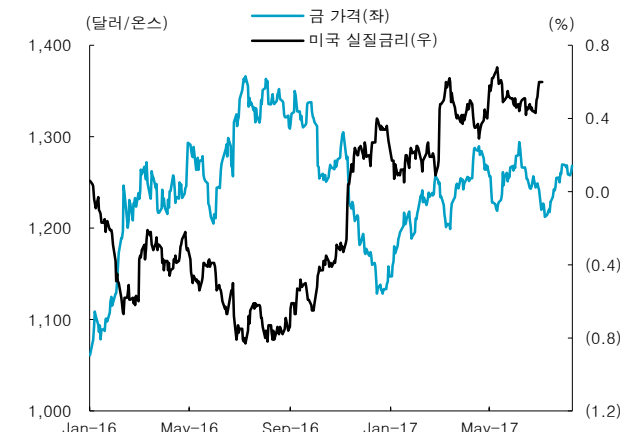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써 금에 대한 투자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 가격의 상승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 실질금리와 금 가격은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 5] 금 가격과 미국 실질금리 추이 - 장기



주: 미국 실질금리는 10년 국채수익률에서 Core CPI 상승률을 차감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금 가격과 미국 실질금리 추이 - 단기



주: 미국 실질금리는 10년 국채수익률에서 Core CPI 상승률을 차감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경우 금 가격의 상승세는 제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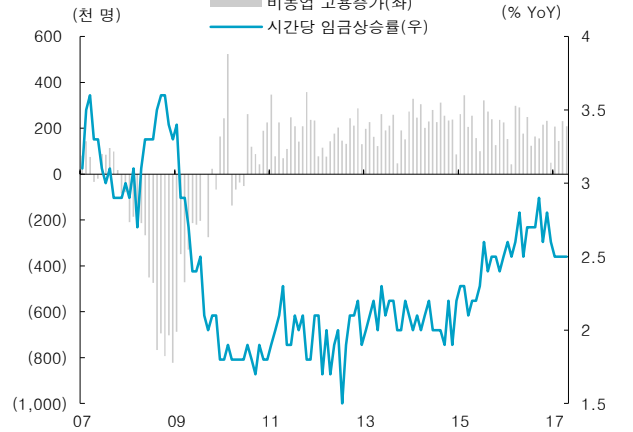
비록 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7월 고용지표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처럼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이상 금 가격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금 가격은 온스당 1,200~1,300 달러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7]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모습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반면 고용지표는 호조세 지속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에 홍콩 약세, 본토 영향 미미

- ▶ 상해종합지수는 0.2% 하락,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했던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뚜렷
- ▶ 홍콩H지수는 1.1% 하락, 본토 금융주의 약세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약세로 작용

상해종합지수 0.2% 하락,  
증권, 은행, 보험, 항공, 조선 등의 업종 약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2% 하락한 3,276p를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약 보합세를 이어갔다. 거래대금은 2,378억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7% 감소했다. 금일 발표된 7월 생산자물가(PPI)가 5.5%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약화됐다.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했던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두드러졌다. 오전에는 최근 약세를 보였던 가전, 음식료 등 업종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던 반면 은행, 증권 등 금융주들에 차익매물이 출회하며 지수 약세를 견인했다. 또한 오전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철강, 석탄 등 시크리컬 업종들이 공급측 개혁 기대감에 오후 들어 반등하며 지수 낙폭을 제한했다. 한편,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차스닥 지수는 신소재 업종의 강세 속에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지속됐으나 매수규모는 12.2억위안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홍콩H지수 1.1% 하락,  
금융, 산업재, 부동산, 에너지 등의 업종 약세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1.1% 하락한 10,963p로 마감하며 약세로 전환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하락폭이 확대됐다. 본토 금융주들이 차익실현 매물 속에 일제히 하락한 것이 약세로 작용한 가운데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하락한 것이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금융, 산업재, 부동산, 에너지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최근 강세 랠리를 보이던 중국신다(1359.HK)가 2.9% 하락했다. 금융주의 약세 속에 항셱지수도 0.4% 하락한 27,757p로 마감했고, A/H 프리미엄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2% 상승한 126.6p로 마감했다.

####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8/9 (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275.57	-0.19	-0.29	1.79	5.54
심천종합	1,885.55	0.34	0.87	-1.70	-4.24
차스닥	1,763.05	0.04	2.22	-3.94	-10.14
홍콩H	10,962.60	-1.06	-0.84	6.93	16.69
Shibor 7일물 금리(% , %p)	2.88	0.39	0.57	3.46	13.33
Shibor 1개월 금리(% , %p)	3.88	0.00	-0.19	-8.05	17.23
중국국채 3년물(% , %p)	3.67	0.05	1.00	2.14	20.92
위안/달러 고시환율	6.7075	-0.16	-0.08	-1.24	-3.31
역내 위안/달러	6.6782	0.42	0.65	1.88	4.00
역외 위안/달러	6.6941	0.27	0.53	1.67	4.21

주: 9일 오후 6시 11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며 하락

-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되며 다우지수가 1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2,380p선을 밀돌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로 1% 이상 급락하며 2,370P선 아래로 밀려남.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세로 1.3% 이상 급락하며 640P선을 위협하는 하락세로 마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와이지-원, 현대통신, 미래에셋생명, 아이쓰리시스템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사드 여파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오픈으로 인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에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파라다이스는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에 나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최근 구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대한전선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명문제약, 씨트리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또한, SK텔레콤과 함께 IoT 신사업을 추진중으로 알려진 아이리버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대치가 격화되며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아이마켓코리아가 10%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b>미래에셋생명(085620)</b> <b>▶5,420 (+3.24%)</b>	<b>상반기 순익 급증 소식에 강세</b> -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9%, 53.4%, 303.3%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강세 - 오만에서의 프로젝트 수주는 이번이 처음으로 영국 페트로팩사와 공동 수주했으며,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수주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b>파라다이스(034230)</b> <b>▶15,050 (+3.79%)</b>	<b>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에 강세</b> - 사드 여파로 2분기 27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으나, 하반기 중국 카지노 수요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실적 회복 기대감에 강세 - 일본객 방문객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7월 카지노 부문 매출 증가 및 하반기 파라다이스 시티 성장 등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
<b>방위산업주</b>	<b>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며 강세</b> - 북한이 미국의 예방타격론에 맞서 꿈을 목표로 포위사격을 하는 선제타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며 강세 - 한일단조(024740, 상한가), 빅텍(065450, +19.51%), 스펀코(013810, +12.79%), 솔트웍스(230980, +8.02%), 아이쓰리시스템(214430, +5.20%), LIG넥스원(079550, +4.90%)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b>와이지-원(019210)</b> <b>▶14,000 (+12.45%)</b>	-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7.6%, 408.1%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b>현대통신(039010)</b> <b>▶10,700 (+8.19%)</b>	- 2분기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5.8%, 41.7%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 단기 유망종목: 이엘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이엘피 (063760)	26,550 (-3.3)	27,450 (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진율이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향상 전망</li> <li>- 본사 이전을 통해 2019년까지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여 재무건전성 우수</li> <li>- 2017년 예상 PER 7.6배로 디스플레이 장비주 평균 PER 10.2배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li> </ul>
코엘퍼션 (033290)	4,945 (+18.7)	4,16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와 추가 라이선스 브랜드 확대 가능</li> <li>- 신규 런칭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고 기존 언더웨어 및 스포츠웨어 사업부도 견조한 성장 전망</li> <li>- '17년 예상 PER 9.2배로 해외진출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 대비 저평가 구간</li> </ul>
조광페인트 (004910)	11,750 (+8.8)	10,800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공용 도료 1위 업체로 국내 도료 업체들의 출혈경쟁 완화를 통한 수혜 전망</li> <li>- 조선용 도료를 생산하는 조광요원의 금년 지분법이익은 건조량 감소로 전년의 절반인 30억원에 그치겠으나 2018년부터 빠르게 개선될 전망</li> <li>- 부채비율 42%, PBR 0.7배로 지분법이익 악화를 감안해도 2017F PER 7.5배로 저평가 매력 상존</li> </ul>
피에스텍 (002230)	6,730 (+5.8)	6,360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AMI(지능형 계량시스템)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가파른 외형성장 전망</li> <li>- 작년 4월 이뤄진 공장이전과 증설에 이어 올해 8월 나주 신공장 완공으로 급증하는 수주에 대응 가능</li> <li>- 850억에 육박하는 현금성자산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M&amp;A 추진으로 잠재성장동력 강화 예상</li> </ul>
백산 (035150)	9,340 (+3.1)	9,060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2위 합성피혁 공급자로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운동화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지속</li> <li>- 차량용 내장재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며, 전자제품 케이스 매출도 애플향 공급모델 추가로 증가 전망</li> <li>- 최근 증설한 베트남 공장의 전면 가동으로 수익성이 높은 스웨이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 예상</li> </ul>
대주전자재료 (078600)	8,340 (+24.1)	6,720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도성 페이스트 부문 주요 고객사에 삼성전기가 추가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li> <li>-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의 사용처가 IT 부문에서 자동차 전장 부문으로 확장되며 MLCC 수요 증가 전망</li> <li>- 일반용 LED 부문에서 발생하던 형광체 매출이 자동차용 PIG(Phosphor in Glass) 매출까지 확대되며 실적 성장 전망</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이오티엑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오티엑 (091120)	12,850 (-8.9)	14,100 (7/20)	256	21	15	1,060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li> <li>-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li> </ul>				
KG ETS (151860)	4,315 (+2.3)	4,220 (7/05)	125	20	15	428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팀 판가와 등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li> <li>-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li> <li>-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li> </ul>				
SK (034730)	274,000 (-2.1)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li> <li>-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li> </ul>				
풍산 (103140)	53,400 (+30.9)	40,800 (5/23)	2,970	279	190	6,766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추가 할인 요인 제거</li> <li>-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li> </ul>				
이지바이오 (035810)	6,780 (+2.9)	6,590 (5/17)	1,438	99	41	754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계 및 돈육 시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에 따라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li> <li>- 올해 당사의 자회사인 옵티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li> <li>- 6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당사의 주가가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li> </ul>				
오텍 (067170)	12,900 (+13.7)	11,350 (4/6)	828	37	17	1,288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li> <li>-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li> <li>-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철강: 금구은십(金九銀十)과 감산이 이끄는 하반기

### ■ 5월 이후 중국 철강 가격 강세

중국 철강 가격을 5월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5월 이후 중국 내수 가격이 강종별로 철근 21%, 열연 29%, 후판 20%, 냉연 25%, 그리고 아연도금강판이 14% 상승했다. 최근 한달 동안에도 철근 12%, 열연 14%, 후판 14%, 냉연 12%, 그리고 아연도금강판이 8% 상승했다. 5~6월이야 성수기라 쳐도 비수기인 7월에 상승폭이 크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격 상승으로 중국의 철근 스프레드가 400달러를 육박해 한달 만에 20% 상승했다. POSCO 주가가 최근 상승했지만 위와 같은 스프레드 급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에 급등한 스프레드가 하락하며 주가가 동반 하락한 경험이 있어서다. 그렇다면 8월 이후 스프레드가 과거와 같이 다시 하락할 것인가? 가 현재 철강업종의 가장 핵심 문제일 것이다.

### ■ 하반기, 금구은십(金九銀十)과 감산의 콜라보

중국 시장에 떠도는 용어 중 금구은십(金九銀十)이 있다. 9월은 금과 같고 10월은 은과 같다는 말로 그 만큼 이 시기가 부동산이나 소비가 최고의 성수기라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철강 업황도 이에 영향을 받아 9~10월이 2분기 못지 않은 성수기를 보인다. 여기에 최근 당산시가 겨울 난방기(11월~3월)에 철강 가동률을 50%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산시는 중국 전체의 10%인 1.2억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동률을 50%로 제한하면 2017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중국 전체 생산량이 산술적으로 5%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게다가 11월부터는 준철 재고 비축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현재 낮은 유통 재고를 감안하면 올해 재고 비축이 약하지 않을 것이다. 재고 비축 수요는 여전한데 생산이 감소한다면 업황이 나빠지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8월 이후 하반기 중국 철강 업황은 수요증가와 감산, 그리고 재고비축이 이어져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 ■ 철강업종 투자 매력 여전히 높다. Top pick - POSCO

철강의 다운 사이클은 2011년부터 본격화되었고, 현재 중국의 철근 스프레드는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이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철강업종이 턴어라운드를 넘어 본격적인 상승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철강업종 투자 판단은 밸류에이션보다 방향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투입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스프레드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잉여 생산 능력 축소라는 공급 변화에 의한 업황 개선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기 가격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투자 의지가 흔들려선 안 된다. 그렇다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낮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국 철강 업체의 저평가도 여전히 있다. POSCO와 현대제철 모두 동종업체 대비와 ROE에 비해 PBR이 낮다. 특히 현대제철은 자동차의 부진이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철강업체 주가의 re-rating은 현재 진행형이다. 철강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대림산업(000210)

**매수(유지)**

목표가: 130,000원(유지)

종가(8/8): 88,300원

## 외면당했던 1.8조원의 가치

### ■ 대림산업의 변신, 유화사업의 투자 확대

복합기업으로 안정적 이미지는 강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졌던 대림산업이 선택과 집중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외건설은 원가율 88%로 양호하고, 이란 중심으로 연 4조원의 수주가 가능하다. 유화사업은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YNCC부터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대림코퍼레이션까지 수직계열화 돼 YNCC를 포함한 유화이익은 2014년 1,590억원에서 2017년 5,020억원으로 급증한다. 투자확대로 1조원대인 유화매출은 증기적으로 2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다. 본 자료는 그간 외면됐지만 확고한 어닝파워를 구축한 유화사업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 ■ 계열사 전반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으로 리레이팅

주가는 기업이 혁신할 때 가장 빠르게 리레이팅된다. 대림산업 내 저수익 사업부의 매각, IPO,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대림C&S의 IPO로 700억원을 조달했고 최근에는 적자가 계속됐던 대림자동차의 이륜차사업부를 334억원에 매각했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삼호는 이제 대림산업의 최대 연결종속회사로 편입되며 2017년 영업이익 1천억원 시대를 연다. 이처럼 대림산업은 모든 자산과 자회사의 사업재편과 선별투자로 이익구조를 극대화하고 있다.

### ■ Hidden value를 반영해 박스권 돌파할 전망

사업재편과 핵심사업의 투자 확대로 hidden value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건설사업 가치 2.4조원, 유화사업 가치 1.8조원, D타워/삼호/포천파워/대림자동차 등 자회사 가치를 1.1조원으로 추정해 목표주가 130,000원과 top pick을 유지한다. 현재 시가총액 3조원은 이익이 과거대비 3배로 레벨업 된 유화사업의 가치가 전액 배제된 상태로, 업계 3위의 NCC를 싸게 살 기회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9,514	272	207	5,352	NM	359	12.5	9.0	0.6	4.8	0.4
2016A	9,854	419	265	6,868	28.3	528	12.7	8.5	0.7	5.9	0.3
2017F	11,647	589	478	12,402	80.6	705	7.2	5.4	0.7	9.9	0.3
2018F	12,375	652	521	13,537	9.1	774	606	4.8	0.6	9.8	0.3
2019F	12,632	678	547	14,190	4.8	805	6.3	4.5	0.6	9.3	0.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인터파크(108790)

**중립(유지)**

종가(8/8): 10,200원

## 더딘 걸음

### ■ What' s new : 영업이익 흑자전환했으나 컨센서스 하회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0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늘었고 영업이익 17억원으로 흑자전환 했지만 컨센서스(25억원)와 우리 추정치(23억원)를 각각 31.3%, 25.6% 하회했다. 전년동기 투어부문이 볼륨확대 전략에 근거해 판촉비가 크게 늘어 영업손실 47억원을 기록했던 기저효과가 있었다. ENT 부문 이익은 연결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기대보다 좋았지만 도서 부문 적자가 예상보다 컸다. 전체 거래액은 8,749억원으로 4.7% 늘었고, 부문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ENT(+32.8%), 쇼핑(+1.5%), 투어(-0.6%), 도서(-14.2%) 순이었다. 부문별 영업이익은 투어 29억원(흑전), ENT 16억원(+505% YoY), 쇼핑 -2억원(적자전환), 도서 -25억원(적자지속)이었다(표2).

### ■ Positives : ENT 부문 영업이익 증가

ENT 부문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한 1,687억원을 기록했다. 콘서트 판매 호조와 평창동계올림픽(18년 2월 9일~25일) 관련 판매액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ENT 매출액은 268억원으로 3.5% 감소했는데 평창올림픽 관련 판매액의 재무 실적 반영은 티켓이 사용되는 내년 시점이기 때문이다. 연결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505% 늘었는데, 별도 이익은 5% 줄었지만 연결 자회사인 서클컨텐츠컴퍼니(지분율 71%)가 영업손실 5억원으로 전년동기(-14억원) 대비 개선됐고 인터파크씨어터(100%)가 팬텀 등 대관 투자 공연 흥행으로 투자수익이 늘어 영업이익이 5억원으로 전년동기(0.5억원) 대비 증가했다.

### ■ Negatives : 투어와 도서 부문의 거래액 감소

투어부문 거래액은 4,6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했다. 작년 2분기에 공격적인 볼륨 확대 전략으로 거래액이 25% 늘었던 기저 부담이 있었다. 항공권 송출객수, 숙박, 패키지 인원은 각각 7%, 13%, 30% 증가했지만 국내/해외로 구분했을 때 국내는 16% 늘었으나 해외가 5%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해외 항공권 송출객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 부문 거래총액은 학습서 위주로 판매가 줄어 335억원으로 14.2% 역성장했다. 판매액 감소로 매출액이 4.2% 줄어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영업손실이 25억원으로 전년동기(-16억원)와 전분기(-4억원) 대비 확대됐다.

### ■ 결론 : 핵심 사업의 성장성 회복이 필요

인터파크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전년 크게 부진했던 기저 효과로 금년 큰 폭의 이익 증가는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핵심 성장동력인 투어 부문의 경쟁력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도서와 쇼핑 부문의 적자도 지속되고 있어 의미 있는 추가 반등을 위해서는 핵심 사업의 성장성 회복이 필요하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03	105	1.9	106	(15.2)	2.6	491	495
영업이익	2	2	(25.6)	3	(82.4)	(흑전)	25	27
영업이익률	2.2	1.6	(0.6)	2.4	(6.2)	7.2	5.0	5.4
세전이익	2	0	(85.9)	3	(96.5)	(흑전)	20	25
순이익	1	0	(90.8)	2	(97.7)	(흑전)	14	18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컴투스(078340)

### 매수(유지)

목표가: 150,000원(유지)

종가(8/8): 110,300원

## ‘서머너즈워’ 매출 증가 지속

### ■ What’s new : 기대치에 부합한 2분기 실적

컴투스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94억원(+2.2% YoY, +7.6% QoQ)과 490억원(+0.7% YoY, -2.2% QoQ)을 기록하며 우리 추정치에 부합했다. ‘서머너즈워’ 및 야구 게임들의 매출 증가로 7분기 연속 해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했다. 국내 매출 또한 전분기 대비 24.7% 성장한 170억원을 기록했다. ‘서머너즈워’ 매출액은 유럽 국가들 내 매출 증가와 3주년 이벤트 일시 반영 효과로 전분기 대비 4% 증가한 1,00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케팅 비용은 일본 TV 광고 집행으로 190억원(+58.1% QoQ)으로 증가했다.

### ■ Positives : ‘서머너즈워’ 매출 증가 지속

해외 시장에서만 누적 매출 1조원을 기록한 ‘서머너즈 워’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총 59개 국가에서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으며 2분기에는 독일과 유럽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컴투스의 해외 매출 내 유럽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p 상승한 18%를 기록했다. 한편 E-Sports 시장 진출에 따른 홍보 효과로 ‘서머너즈 워’의 인지도 상승 및 라이프 사이클의 장기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반기 공개될 ‘공성전’ 업데이트를 통한 매출 수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된다. 기존 길드전 대비 이용자간 경쟁이 심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게임 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사용자들의 아이템 구매가 증가할 전망이다.

### ■ Negatives : 하반기부터 비용 증가 본격화

3분기를 시작으로 마케팅 비용 증가가 본격화 됨에 따라 수익성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Sports 행사 및 서구권 브랜딩 광고 재개로 3분기와 4분기 마케팅 비용은 각각 226억원(+18.7% QoQ)과 284억원(+25.8% QoQ)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신규 이용자들은 향후 진행될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E-Sports를 통한 ‘서머너즈 워’ IP의 인지도 상승은 2018년 상반기 출시될 ‘서머너즈 워 MMORPG’의 흥행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 ■ 결론 : 매수 의견 유지

컴투스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50,000원(12MF EPS에 Target PER 12배 적용)을 유지한다. 하반기로 예정된 ‘공성전’ 업데이트와 글로벌 마케팅 재개로 ‘서머너즈워’는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E-Sports 시장 진출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 장기화와 인지도 상승도 긍정적이다. 또한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에 집중된 신작들의 출시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One-Game Risk에 대한 우려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27	129	1.4	129	7.6	2.2	521	530
영업이익	50	49	(1.6)	50	(2.2)	0.7	189	202
영업이익률	39.1	38.0	(1.2)	38.3	(3.7)	(0.4)	36.2	38.1
세전이익	51	52	1.0	52	4.2	(2.0)	196	208
순이익	39	36	(6.8)	39	2.2	(1.2)	144	15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한국타이어(161390)

<b>매수(유지)</b>
목표가: 90,000원(유지)
종가(8/8): 63,000원

## 동계용 타이어 준비하셨나요?

### ■ What's new: 영업이익 컨센서스 7.4% 하회

2분기 실적은 비우호적인 환율과 원재료비 상승으로 부진했다. 생산량이 추정치 대비 0.6% 적었고, 가격이 4.7% 낮아 매출이 추정치를 5.3% 하회했다(상세 내역은 2p 참조). 영업이익은 2,038억원(-34.3% YoY, OPM 12.2%)으로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5%, 7.4% 하회했으나 수익성은 예상에 부합했다. 고성능타이어(UHPT) 비중은 36.9%(+0.2%p QoQ, +1.7%p YoY)로 상승하며 믹스개선이 이어졌다. 특히 중국 내 UHPT 선호도가 높아지며 한국타이어의 중국 내 UHPT 비중이 48%까지 올라왔다(QoQ +3.9%p, YoY +7.8%p).

### ■ Positives: 가격인상, 원재료비 하락, 동계용 타이어 판매로 3분기 실적 개선

3분기에는 2차 가격인상이 반영되고, 원재료비가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동계용 타이어 판매가 집중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3Q17F OP 3,020억원, OPM 17.5%). 2차 가격인상이 국내, 유럽, 중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월 이후 고무가격 현물이 다시 약세로 전환되면서 3분기 원재료 투입비용은 톤당 1,697달러로(QoQ -7.6%) 하락할 전망이다(천연/합성고무 1,897/1,966달러, QoQ -9/-17%). 여기에 회사에 따르면 동계용 타이어 유통재고가 지난 겨울 유럽지역 적설량 증가로 대부분 소진되면서 동계용 타이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동계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 대비 가격이 약 30% 높고 수익성도 높기 때문에, 연간 판매의 80%가 집중되는 3분기 수익성을 견인할 전망이다(3분기 매출 내 동계용 타이어 비중 25% 추정).

### ■ Negatives: 물량 불확실성 증대

가격과 비용 측면에서는 3분기 개선이 뚜렷하나 물량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현대기아차 파업과 중국 내 사드여파, 그리고 테네시 공장 정상화에 따라 한국타이어의 3분기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중국 판매량이 8월까지의 부진할 전망이다 파업의 빈도와 강도가 예년보다는 약하다는 가정과 테네시 공장이 3분기에 50만분을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 3분기 생산량은 YoY 2% 늘어날 전망이다(25,200천본).

### ■ 결론: 되는 업체에 투자하자

한국타이어는 주요지역에서 점유율 확대와 가격인상이라는 서로 충돌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와 우수한 품질, 그리고 탄탄한 딜러망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무가격 변동성 확대로 2분기 실적이 부진했으나, 여전히 타이어 업황은 건조한 상황이며 하반기부터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타이어 최선호주와 목표주가 9만원을 유지한다(12MF PER 11x).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759	1,667	(5.3)	1,753	1.7	(3.5)	6,887	6,988
영업이익	215	204	(5.0)	220	(12.3)	(34.3)	1,051	1,008
영업이익률	12.2	12.2	-	12.6			15.3	14.4
세전이익	216	223	3.3	-	7.9	(28.2)	1,029	-
순이익	173	195	12.9	174	16.5	(26.4)	827	799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파라다이스(034230)

**매수(유지)**

목표가: 17,500원(유지)

종가(8/8): 14,500원

### 바닥은 쳤다

#### ■ What's new : 영업손실 273억원, 컨센서스 하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와 우리 추정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연결 매출액은 1,3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0% 감소하고 영업손실 273억원으로 적자전환 했다. 연결 카지노 드롭액이 1조 1,232억원으로 6.3% 줄고 홀드율이 9.6%로 3.5% 하락해 카지노 매출액이 감소했다. 부문별 매출액은 카지노 1,149억원(-31.1% YoY), 호텔 211억원(+9.6% YoY), 기타 39억원(+26.9% YoY) 이었다. 영업손실 폭이 예상보다 컸는데, 본사가 외형 감소(-42.4% YoY)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콤포 비용 감소율(-26.9% YoY)이 매출액 대비 낮아 영업손실 78억원으로 전년동기(273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 ■ Positives : 예상보다 견조한 7월 성과

같이 발표된 7월 실적은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성과를 기록했다. 연결 카지노 드롭액은 전년동월대비 18.7% 늘어난 4,771억원을 기록했고, 홀드율이 9.8%로(-1.6%p YoY) 하락해 매출액은 499억원으로 1.6% 증가했다. 파라다이스 시티 드롭액은 1,490억원으로 88.2% 늘었는데 중국인VIP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성과가 확대됐다. 파라다이스시티는 4월 20일 오픈 이후 전월대비(MoM) 드롭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긍정적이다. 워커히 카지노 드롭액도 2.4% 감소에 그쳐 2분기(-20.5% YoY) 대비 역성장폭이 축소됐다.

#### ■ Negatives : 수익성 대폭 하락

영업손실 273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손실률이 -19.5%로 전년동기대비 36.9%p 하락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매출액이 61% 늘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과 개장 관련 일회성 비용(17억원) 반영 등으로 영업손실 181억원을 기록했다. 감가상각비는 73억원 반영됐는데 자산 재분류 과정에서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긴 건물의 비중이 높아져 평균내용연수가 기존 13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 연 감가상각비가 300억원(기존 550억원 수준)으로 줄게 된 점은 단기 비용 부담 완화에 긍정적이다. 파라다이스 호텔부산은 상반기 호텔 리노베이션 진행으로 매출액이 21% 줄어 영업손실 1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하반기에는 영업 정상화와 성수기 진입으로 연결 이익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 ■ 결론 : 성과 확대에 따른 이익 개선 예상, 매수 의견 유지

파라다이스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7,500원(12개월 forward EV/EBITDA 14배 적용)을 유지한다.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킨 파라다이스시티는 전월대비 성과 확대를 지속하며 실적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 대외 환경이 개선되면 기존 카지노의 실적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이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35	140	3.6	151	(1.8)	(26.0)	688	706
영업이익	(19)	(27)	41.8	(10)	(적지)	(적전)	(18)	(2)
영업이익률	(14.3)	(19.5)	(5.3)	(6.6)	(14.1)	(36.9)	(2.6)	(0.2)
세전이익	(25)	(28)	NM	(17)	(적전)	(적전)	(15)	(1)
순이익	(15)	(19)	NM	(7)	(적전)	(적전)	(9)	(4)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김성근(skkim@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3(목)	8/4(금)	8/7(월)	8/8(화)	8/9(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86.85	2,395.45	2,398.75	2,394.73	2,368.39	
	등락폭	-40.78	8.60	3.3	-4.02	-26.34	
	등락종목	상승(상한)	142(2)	469(2)	458(0)	345(0)	202(0)
		하락(하한)	698(0)	335(0)	339(0)	447(0)	611(0)
	ADR	84.74	88.11	93.36	92.00	90.48	
	이격도	10 일	98.38	98.96	99.31	99.33	98.51
		20 일	98.72	99.04	99.14	98.98	97.94
	투자심리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304	274	244	253	232
	거래대금	(십억 원)	6,501	5,084	4,428	4,624	4,638
코스닥	코스닥지수	643.09	641.58	648.39	651.67	642.87	
	등락폭	-14.43	-1.51	6.81	3.28	-8.8	
	등락종목	상승(상한)	157(1)	534(1)	748(1)	602(3)	208(2)
		하락(하한)	998(0)	555(0)	344(0)	495(0)	926(0)
	ADR	100.61	100.33	101.35	101.81	100.39	
	이격도	10 일	97.21	97.50	98.97	99.76	98.78
		20 일	97.27	97.21	98.31	98.84	97.56
	투자심리	4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주)	528	459	456	608	842
	거래대금	(십억원)	3,198	2,671	2,449	2,588	2,99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62.1	1,375.8	1,230.3	314.9	66.5	183.2	58.5	13.1	594.1	74.2
	매도	2,048.1	1,636.1	921.8	250.2	70.7	176.2	96.7	25.6	302.5	36.4
	순매수	-86.0	-260.3	308.5	64.8	-4.2	7.0	-38.2	-12.5	291.6	37.8
	8월 누계	12.1	-542.2	298.7	325.7	11.1	106.0	-54.3	-35.2	-54.6	231.4
	17년 누계	-4,953.2	8,156.5	-6,179.4	3,753.7	-1,548.3	-3,659.0	-263.9	-597.3	-3,864.8	2,976.1
코스닥	매수	2,659.5	192.5	135.2	28.7	11.6	32.1	24.1	1.9	36.7	14.1
	매도	2,637.9	238.4	102.8	31.3	5.0	19.2	13.9	2.5	31.0	22.2
	순매수	21.6	-45.8	32.3	-2.6	6.6	12.9	10.3	-0.6	5.8	-8.1
	8월 누계	196.9	-154.8	-15.6	3.6	1.8	-1.3	26.2	-0.9	-45.2	-26.6
	17년 누계	2,819.5	1,066.4	-2,781.1	-668.0	-364.3	-617.8	-320.4	-69.7	-741.0	-1,104.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2,312	철강금속 -6,870
기타금융업	8,002	유통업 -4,289
통신업	3,213	운수장비 -3,657
KODEX 레버리지	9,408	TIGER 200 -6,306
SK하이닉스	5,913	POSCO -4,381
삼성전자	5,877	기아차 -3,639
현대로보틱스	4,718	현대중공업 -2,859
두산밥캣	3,530	KBSTAR 200 -2,58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81,981	건설업 -2,665
화학	31,544	의약품 -916
운수장비	24,447	비금속 -341
삼성전자	55,412	LG디스플레이 -6,247
SK하이닉스	22,506	신한지주 -3,476
LG전자	7,621	현대로보틱스 -2,823
한국타이어	7,396	대림산업 -1,938
현대모비스	7,373	금호석유 -1,59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6,028	철강금속 -12,319
전기전자	3,929	유통업 -2,101
음식료	544	운수장비 -1,075
KODEX 레버리지	18,502	POSCO -12,099
KODEX 200	4,077	KODEX 인버스 -10,231
TIGER 200선물레버리지	2,136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6,615
TIGER 200	1,831	KOSEF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합성) -5,118
ARIRANG 고배당주	1,757	현대모비스 -1,16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7,162	화학 -3,016
철강금속	2,509	건설업 -2,604
통신업	2,119	유통업 -1,497
KODEX 200	12,898	KODEX 인버스 -9,678
KBSTAR 200	4,849	LG화학 -3,907
ARIRANG 200	3,517	GS건설 -1,911
현대로보틱스	3,301	현대중공업 -1,811
TIGER 200	2,892	LG디스플레이 -1,575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49,750	미분류 -20,181
서비스업	36,999	건설업 -7,360
화학	30,492	철강금속 -5,115
삼성전자	123,329	KODEX 레버리지 -45,705
SK하이닉스	26,881	POSCO -9,179
엔씨소프트	16,278	신한지주 -7,126
한국타이어	11,973	LG디스플레이 -6,957
KODEX 200선물인버스2X	10,914	기아차 -5,998
한화생명	10,758	기업은행 -4,649
한국전력	10,402	삼성물산 -4,638
현대모비스	10,000	대한해운 -3,505
NH투자증권	8,731	아이마켓코리아 -3,260
현대위아	8,364	삼성전기 -3,26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금속	21,253	전기전자 -326,047
기타금융업	16,276	보험업 -19,231
운수장고	9,157	서비스업 -4,002
현대로보틱스	15,897	삼성전자 -219,741
신한지주	15,813	SK하이닉스 -64,781
POSCO	12,450	한화생명 -13,673
현대차	11,375	한국타이어 -12,716
엔씨소프트	9,653	삼성전기 -12,652
SKC	7,312	삼성SDI -12,443
고려아연	5,958	NAVER -7,855
기아차	4,794	하나금융지주 -7,822
KODEX 인버스	4,662	삼성생명 -6,529
한샘	3,764	한화테크윈 -5,72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3,764	도매	-789	제약	7,879	비금속	-1,644
IT부품	2,946	소프트웨어	-636	의료,정밀기기	1,606	디지털컨텐츠	-857
오락,문화	2,441	화학	-588	IT부품	1,004	기계,장비	-737
파라다이스	3,542	셀트리온헬스케어	-1,317	셀트리온	7,206	AP시스템	-2,076
셀트리온	2,866	CJ E&M	-788	메디포스트	1,284	포스코켄텍	-1,706
이녹스첨단소재	1,50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506	서울반도체	1,041	위메이드	-800
CJ오쇼핑	1,379	로엔	-499	와이지-원	906	케어젠	-739
인터플렉스	1,153	아이씨디	-479	CJ오쇼핑	769	파마리서치프로덕트	-59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02	제약	-1,041	제약	3,413	화학	-571
화학	235	의료,정밀기기	-250	금속	1,250	반도체	-129
종이,목재	194	운송장비,부품	-189	일반전기전자	886	의료,정밀기기	-108
비에이치	277	메디톡스	-690	셀트리온	2,942	AP시스템	-553
솔브레인	250	옵트론텍	-249	와이지-원	1,136	SKC코오롱PI	-528
원익머트리얼즈	249	우리산업	-184	슈프리마	793	바텍	-476
파라다이스	151	디오	-139	이녹스첨단소재	750	에스엠	-405
삼보판지	107	더블유게임즈	-134	CJ오쇼핑	621	더블유게임즈	-352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9,490	반도체	-1,882	오락,문화	8,750	반도체	-15,571
금속	4,442	비금속	-1,844	섬유,의류	1,401	IT부품	-13,420
오락,문화	3,055	섬유,의류	-1,101	비금속	967	의료,정밀기기	-5,656
셀트리온	17,656	AP시스템	-4,166	파라다이스	10,842	인터플렉스	-2,937
와이지-원	5,017	포스코켄텍	-2,818	AP시스템	2,262	셀트리온헬스케어	-2,740
파라다이스	4,635	메디톡스	-1,886	메디포스트	1,913	주성엔지니어링	-2,628
CJ오쇼핑	2,655	바텍	-1,271	코웰패션	1,529	테라세미콘	-2,489
셀트리온헬스케어	2,402	케어젠	-1,091	포스코켄텍	1,388	에코프로	-2,432
이녹스첨단소재	2,199	상아프론테크	-1,063	더블유게임즈	1,312	아이센스	-2,073
메디포스트	1,936	코웰패션	-1,055	이지바이오	1,038	원익IPS	-2,001
인터플렉스	1,564	아이씨디	-1,004	휴젤	1,036	테스	-1,999
팜트론	1,374	더블유게임즈	-875	SKC코오롱PI	988	서울반도체	-1,650
인바디	1,199	테라세미콘	-776	와이지-원	767	메디톡스	-1,37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세방	28 일	휴켄스	26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35 일	다나와	15 일
한화생명	24 일	GS	17 일	신화인터텍	22 일	진로발효	13 일
쌍용머티리얼	21 일	삼광글라스	16 일	에이티젠	21 일	피제이메탈	11 일
화신	20 일	오리온	14 일	두울산업	21 일	동원개발	10 일
한전KPS	18 일	롯데하이마트	14 일	차이나그레이트	20 일	더블유게임즈	9 일
계룡건설	18 일	LS산전	13 일	유안타제2호스팩	19 일	케이피에프	9 일
신영증권	17 일	기업은행	12 일	코아시스템	19 일	하이록코리아	9 일
삼원강재	16 일	세아특수강	12 일	AP위성	17 일	우성아이비	8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엔씨소프트	73,417	현대로보틱스	66,597	셀트리온	79,920	파라다이스	15,713
LG전자	66,204	엔씨소프트	45,014	파라다이스	14,829	코웰패션	6,283
LG화학	59,929	신한지주	42,564	비에이치	11,288	AP시스템	5,527
현대위아	45,120	롯데케미칼	38,954	메디포스트	8,936	더블유게임즈	5,151
NAVER	39,629	고려아연	30,137	와이지-원	8,328	CJ오쇼핑	4,294
현대차	31,814	한국전력	26,750	CJ오쇼핑	7,965	이녹스첨단소재	3,972
현대모비스	28,706	KB금융	22,364	주성엔지니어링	6,790	티씨케이	3,528
효성	25,608	POSCO	22,257	인터플렉스	5,267	컴투스	2,749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타금융업	26,933	16,276	43,209	오락,문화	3,055	8,750	11,805
화학	30,492	3,714	34,205	연구,개발	854	217	1,071
운수장비	22,217	6,949	29,166	환경	126	226	352
엔씨소프트	16,278	9,653	25,931	파라다이스	4,635	10,842	15,476
현대로보틱스	2,111	15,897	18,008	와이지-원	5,017	767	5,784
현대차	1,976	11,375	13,351	메디포스트	1,936	1,913	3,849
KODEX 200선물인버스2X	10,914	191	11,106	휴젤	497	1,036	1,533
현대위아	8,364	1,422	9,786	컴투스	1,048	383	1,431
현대글로벌비스	5,483	3,538	9,021	코엔텍	1	708	708
NH투자증권	8,731	130	8,861	바이로메드	224	400	624
두산인프라코어	5,732	2,848	8,580	엘오티베콤	310	293	602
고려아연	892	5,958	6,851	제이콘텐츠리	394	126	520
한세실업	3,169	2,761	5,930	와이솔	451	57	50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 인버스 인도 Nifty50 선물 ETN(H)	24 일	백광소재	27 일
벽산	20 일	계룡건설	27 일
AJ네트웍스	18 일	영풍제지	19 일
코스맥스비티아이	17 일	한화생명	18 일
일정실업	17 일	동원금속	15 일
KINDEX 골드선물 인버스2X(합성H)	16 일	삼양통상	15 일
경동나비엔	16 일	전방	14 일
메리츠화재	16 일	유니온	1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그랜드백화점	51 일	크로바하이텍	31 일
남화토건	17 일	인탑스	30 일
아미코젠	16 일	디지털아이	30 일
아이티센	15 일	이라이콤	30 일
AP시스템	14 일	이상네트웍스	24 일
더블유게임즈	14 일	동양피엔에프	19 일
큐렉소	12 일	탐엔지니어링	19 일
상아프론테크	11 일	엠에스씨	18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83,526	삼성전자	-322,931
SK하이닉스	-56,071	SK하이닉스	-179,816
한국항공우주	-44,509	한국항공우주	-133,593
현대로보틱스	-39,767	NAVER	-38,684
KODEX 200	-27,198	LG디스플레이	-35,646
넷마블게임즈	-24,193	GS리테일	-31,350
코스모화학	-18,571	한화생명	-28,192
CJ대한통운	-18,530	삼성엔지니어링	-26,91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헬스케어	-19,222	셀트리온	-20,796
메디톡스	-12,495	메디톡스	-19,646
더블유게임즈	-11,895	휴젤	-17,912
모트렉스	-10,072	주성엔지니어링	-10,404
이녹스첨단소재	-9,609	모트렉스	-9,884
AP시스템	-8,321	비에이치	-7,735
파인디앤씨	-7,001	아이센스	-5,492
데이터솔루션	-6,914	원익IPS	-5,457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49,750	-326,047	-176,296
미분류	-20,181	-731	-20,912
건설업	-7,360	-3,062	-10,422
삼성전기	-3,260	-12,652	-15,912
삼성SDI	-1,696	-12,443	-14,138
LG디스플레이	-6,957	-3,564	-10,521
KODEX 200	-3,007	-3,695	-6,702
하나투어	-2,958	-3,496	-6,454
삼성물산	-4,638	-1,169	-5,807
현대중공업	-2,030	-2,753	-4,783
삼성엔지니어링	-1,603	-2,956	-4,559
선진	-2,808	-1,455	-4,263
아이마켓코리아	-3,260	-222	-3,482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1,882	-15,571	-17,453
IT부품	2,263	-13,420	-11,157
의료,정밀기기	-797	-5,656	-6,454
테라세미콘	-776	-2,489	-3,265
메디톡스	-1,886	-1,373	-3,259
에코프로	-695	-2,432	-3,127
안랩	-19	-1,329	-1,348
바텍	-1,271	-46	-1,318
CJ E&M	-767	-445	-1,212
동진세미캠	-399	-711	-1,110
엠케이전자	-13	-1,051	-1,064
DMS	-75	-984	-1,060
옵트론텍	-252	-774	-1,02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KODEX 200	775	24,372
LG디스플레이	553	16,984
현대차	74	10,730
엔씨소프트	27	10,518
한국항공우주	234	9,346
POSCO	26	8,947
기아차	197	7,033
NAVER	8	6,33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헬스케어	304	15,023
셀트리온	47	5,098
휴젤	4	1,906
코나아이	115	1,474
비에이치	55	1,246
톱택	40	1,062
SK머티리얼즈	5	1,026
메디투스	2	1,004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975	9,485,199
SK하이닉스	39,552	2,622,291
엔씨소프트	3,262	1,275,336
LG디스플레이	39,014	1,195,794
하나금융지주	23,404	1,188,943
NAVER	1,383	1,120,289
현대로보틱스	2,251	1,062,384
KB금융	16,762	983,94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5,619	2,802,692
바이로메드	2,664	281,060
파라다이스	16,482	238,995
로엔	2,703	232,472
코미팜	4,206	164,887
메디투스	288	149,936
신라젠	5,734	142,770
SK머티리얼즈	511	96,329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계	10,354	음식료	-989
전기전자	3,411	화학	-983
은행	2,624	미분류	-746
두산인프라코어	7,010	KODEX 200	-966
두산중공업	3,434	디아이씨	-789
LG디스플레이	3,142	미래에셋대우	-677
영진약품	2,723	기아차	-666
삼성엔지니어링	2,529	후성	-665
GS리테일	1,517	호텔신라	-608
SK하이닉스	1,389	팬오션	-599
한국항공우주	1,388	한미약품	-404
기업은행	1,373	오리온홀딩스	-398
우리은행	1,254	현대로템	-39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기계,장비	1,958	비금속	-1,138
IT부품	1,699	제약	-405
운송장비,부품	1,508	미분류	-150
브레인콘텐츠	909	유진기업	-1,538
위지트	866	루멘스	-857
엘비세미콘	658	셀트리온	-673
신라젠	638	동국산업	-619
솔고바이오	611	파트론	-564
셀트리온헬스케어	603	씨젠	-549
코다코	478	시노펙스	-452
삼표시멘트	469	SM C&C	-420
아이에이	463	원익IPS	-361
코나아이	410	주성엔지니어링	-358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3(목)	8/4(금)	8/7(월)	8/8(화)	8/9(수)
외국인	8,156.5	-542.2	-641.6	-402.7	-163.7	93.3	91.7	-260.3
기관계	-6,179.4	298.7	289.3	10.2	214.8	-94.2	-150.0	308.5
(투신)	-3,659.0	106.0	51.2	-9.4	-4.4	21.3	36.8	7.0
(연기금)	1,105.1	337.1	305.0	-116.5	53.1	-16.1	136.3	248.2
(은행)	-597.3	-35.2	-28.3	-7.2	-0.4	-8.9	0.7	-12.5
(보험)	-1,548.3	11.1	10.0	-16.2	37.7	-5.3	-1.9	-4.2
개인	-4,953.2	12.1	179.9	357.7	-94.7	-40.2	43.1	-86.0
기타	2,976.1	231.4	172.5	34.8	43.6	41.1	15.2	37.8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8/2(수)	8/3(목)	8/4(금)	8/7(월)	8/8(화)
KOSPI	1,961.3	2,026.5	2,368.4	2,427.6	2,386.9	2,395.5	2,398.8	2,394.7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3,593.1	24,743.4	24,468.0	24,250.7	24,382.3	23,593.1
(증감액)	6,853.1	58.8	838.7	-348.9	-275.4	-217.3	131.6	-789.2
(회전율)	28.8	24.8	30.6	32.7	39.6	32.0	28.2	30.6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238.8	-572.1	-343.9	-200.8	574.1	-771.2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062.7	4,092.5	4,100.3	4,100.2	4,083.6	4,062.7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357.8	4,395.7	4,390.2	4,396.2	4,373.0	4,357.8
미수금	151.0	125.6	148.6	171.1	128.6	125.3	167.3	148.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8/1(화)	8/2(수)	8/3(목)	8/4(금)	8/7(월)
전체 주식형	69,783	-5,569	9	281	-187	-21	-84	20
(ex.ETF)		-5,098	-161	-52	-27	-55	12	-40
국내 주식형	52,287	-5,392	45	285	-198	-19	-60	37
(ex.ETF)		-4,905	-135	-48	-37	-53	26	-22
해외주식형	17,496	-177	-36	-4	10	-2	-24	-17
(ex.ETF)		-193	-26	-4	10	-2	-14	-17
주식혼합형	8,696	645	119	73	6	15	14	11
채권혼합형	20,885	-5,409	-131	-43	-16	-38	-28	-7
채권형	104,649	2,266	-333	-5	76	-191	10	-223
MMF	134,690	30,567	4,811	-295	2,557	2,372	-299	47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3(목)	8/4(금)	8/7(월)	8/8(화)	8/9(수)
한국	7,067	-477	-566	-357	-145	83	81	-228
대만	8,555	7	-290	-186	-65	-17	-23	-
인도	8,686	-209	-154	9	-136	-26	-	-
인도네시아	398	-104	-83	-23	-14	-26	-20	-
태국	-40	-234	-152	-76	-28	-22	-27	-
남아공	-3,525	-113	-96	-51	-103	58	-	-
필리핀	461	15	11	3	0	-1	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8/3(목)	8/4(금)	8/7(월)	8/8(화)	8/9(수)
회사채 (AA-)	2.14	2.28	2.28	2.31	2.33	2.36
회사채 (BBB-)	8.27	8.52	8.52	8.55	8.58	8.60
국고채 (3년)	1.64	1.74	1.74	1.77	1.81	1.83
국고채 (5년)	1.80	1.95	1.95	1.98	2.01	2.04
국고채 (10년)	2.08	2.25	2.25	2.29	2.31	2.34
미 국채 (10년)	2.56	2.22	2.26	2.25	2.26	-
일 국채 (10년)	0.06	0.07	0.07	0.07	0.07	-
원/달러	1,210.50	1,128.80	1,125.00	1,127.10	1,125.10	1,135.20
원/100엔	1,030.04	1,025.25	1,003.00	1,017.61	1,016.90	1,033.03
엔/달러	117.52	110.10	110.96	110.76	110.64	109.89
달러/유로	1.05	1.19	1.17	1.18	1.18	1.18
DDR3 1Gb (1333MHz)	1.15	1.23	1.23	1.23	1.23	-
DDR3 2Gb (1333MHz)	1.50	1.70	1.70	1.70	1.70	-
NAND Flash 16Gb (MLC)	1.87	2.97	2.97	2.97	2.97	-
CRB 지수	193.97	182.66	182.71	183.01	183.14	-
LME 지수	2,663.2	2,977.6	2,979.7	3,015.3	3,064.1	-
BDI	961	1,023	1,032	1,036	1,038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49.03	49.58	49.39	49.17	-
금 (달러/온스)	1,131.35	1,268.10	1,257.70	1,258.00	1,261.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1	1	2	3	4
中> 7월 제조업 PMI (51.4, 51.5, 51.7) 日> 6월 광공업생산 MoM (1.6%, 1.5%, -3.6%) 유럽> 7월 유로존 제조업 PMI (n/a, 56.8, 56.8)	韓> 7월 CPI YoY (2.2%, 2.1%, 1.9%) 7월 수출 YoY (19.5%, 15.9%, 13.7%) 美> 7월 미국 마켓 제조업 PMI (53.3, 56.4, 53.2) 6월 개인소득 (0.4%, 0.0%, 0.4%) 7월 ISM 제조업지수 (56.3, 56.2, 57.8) 유럽> 2분기 GDP YoY (2.1%, 2.1%, 1.9%) 中> 7월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51.1, 50.4, 50.4) 日> 7월 닛케이 PMI 제조업 (52.1, n/a, 52.2)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8%, n/a, 0.4%)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0, 243, 244) 6월 내구재 주문 (6.4%, 0.0%, 6.5%) 6월 제조업수주 (3.0%, 3.0%, -0.3%)	美> 7월 비농업고용자수변동(천건) (209, 180, 222) 7월 실업률 (4.3%, 4.3%, 4.4%) 6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3.6, -44.5, -46.5)
7	8	9	10	11
	日> 6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934.6, 860.5, 1653.9)	韓> 7월 실업률 (3.6%, n/a, 3.8%)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2.8%) 中> 7월 CPI YoY (1.4%, 1.5%, 1.5%) 7월 PPI YoY (5.5%, 5.6%, 5.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40, 240) 7월 PPI 최종수요 MoM (n/a, 0.1%, 0.1%) 日> 6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3.6%) 7월 PPI YoY (n/a, n/a, 2.1%) 6월 3차 산업지수 MoM (n/a, n/a, -0.1%)	美> 7월 CPI MoM (n/a, 0.2%, 0.0%)
14	15	16	17	18
日> 2Q GDP SA YoY (n/a, -0.5%, -0.8%)	美> 7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5%, -0.2%) 日> 6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1.6%)	美> <b>FOMC 회의록 공개</b>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7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20, 1215) 유럽> 2분기 GDP YoY(잠정) (n/a, n/a, 2.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7월 광공업생산 MoM (n/a, 0.1%, 0.4%) 7월 선행지수 (n/a, n/a, 0.6%) 유럽> 7월 CPI YoY (n/a, n/a, 1.3%)	美>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93.4)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